

단순한 설명

유령2

인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담당 부서에 해결책을 제시하러 갔다. 줄은 별로 길지 않았지만 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언가에 관해 설명하는 일은 얼마나 즐겁고 매력적인가요? 내 어렸을 적, 즐겨 다녔던 교육시설은 다양한 크기의 직육면체들을 성의 없이 중첩해 놓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나는 통상 메가스트럭처를 상상할 때 다른 어떤 모양들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직육면체 형태를 한 공간을 중첩한 모양으로만 가능하다. 메가스트럭처를 상상하고 또 메가스트럭처가 등장하는 꿈에서 거니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하나의 즐거움은 아니다. 메가스트럭처와 메가스트럭처에서 얻는 즐거움들은 설명해 봄직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공유해볼 만하다. 메가스트럭처를 구성하는 단위들과 연결체들의 형태와 형식에 의해 메가스트럭처의 전체적인 감상이 좌우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길쭉한 네모 통로를 지나서 거대한 수직 직육면체의 공동에 진입했다고 상상했을 때, 네 벽면의

다른 무수한 구멍들은 직육각형이며 절벽에 나 있는 아주 좁은 길들도 폭이 일정하게 정갈한 형태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게 된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거닐었던 길들, 당신이 거닐었던 공간에 의해 당신이 꾸게 된 꿈들과 상상들, 그것이 구성하는 메가스트럭처,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설명한다. 당신은 그것의 단지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최대한 감상에 빠진 채로 그것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애초에 그것을 설명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나는 예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화하고 싶다. 나는 설명하고 싶다.

세계 안에서 유년기가 작동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는, 아동 성장 서사와 아동 실종 서사를 비교하는 전설적인 글 「아동성장 VS 아동실종」¹에서, 아동들은 메가스트럭처를 구성하는 힘과의 관계 속에서 실종되거나 성장한다. 전설적인 서브컬처 IP <유희왕 듀얼몬스터즈>²가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GX>³로 넘어가면서, 세계관의 도시와 지형에 대한 설정은 전면적으로 변형된다.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가 고대 중동 도시와 현대 일본을 넘나들면서 아동기 메가스트럭처의

¹ 필자의 다른 글.

²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2000~2004)

³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GX (2004~2008)

구획을 현실 속에서 확장하고 연결한다면,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GX>는 가상의 듀얼 아카데미와
이면 세계의 환상을 세계의 중심으로 위치시키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의 재질을 가진
공간들을 향수적인 것으로 외부화한다.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코알라를 닮은 호주 출신 캐릭터가 갖는 아동기 이상향의
공간인 호주의 블루마운틴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 블루마운틴은 광활한 대지 위에 솟아있는
대지의 척추이며 고향을 떠난 이 캐릭터가 언제나 향수하는 공간이다. 나에게 이것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데, 나는 아주 넓고 거대한 콘크리트 직육면체를 상상한다. 이것이 내가 이전에
담당 부서에 제안한 첫 번째 이미지이다. 도시를 뒤덮는 거대한 메가스트럭처. 도시를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콘크리트 직육면체로 뒤덮는 것이다. 그러나 이 초기의 아이디어들은
투박하고 어리숙하다. 나는 후에 이 제안이 설명할 일들을 많이 제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설명하고 설명을 듣는 메가스트럭처의 구성원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나는 감상에 빠져서 말하고 내 말들은 어딘가 직육면체를 띄고 있다. 당신은 그 때문에 더
이해하기 힘들다. 애초에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여력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미친 사람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내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막 회사에
오후 반차를 내고 담당 부서에 다녀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에서 언제든지 누구든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일들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다. 나는 오늘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시기의 세상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일찍 퇴근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담당 부서는 내 의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길거리로 나왔고 내 어린 시절의 공간들과 그것들을 설명하는 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감동적임에 대해 사로잡혔다. 그리고 당신을 거리에서 마주쳤어요.

하루는 나는 어떤 섬에 갔다. 사실 나는 어떤 섬에 간 것이 아니고 어떤 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곳은 실제로는 섬은 아니었지만, 이야기가 숲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섬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섬에는 집이 있었다. 그리고 집 근처에는 숲들이 있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섬이라고 부른다. 숲속에는 호수가 있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꿈을
꾸는 것 같이 혼란스러워한다. 『무슨 무슨의 발명』⁴이라는 이름의 책이었던 것 같다. 이 일화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읽는 경험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환상적인 안개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물론 나는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잊어버렸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이었기

⁴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 『모델의 발명』(1940)

때문이지.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장면을 보세요. 나는 일종의 교육기관에서 (앞서 말했던 교육기관들과는 다른 종류의 교육기관이다) 어떤 교육자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과 글을 쓰는 일의 한데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방식의 행위에 대한 요청을 받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보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내놓게 되었다.

그림: 투시도 형태의 집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으며 그 안에는 의무적으로 구성된 가구들과 창문들이 있다. 집의 경계선 외부에는 들판과 자연 같은 것이 보인다. 그려져 있지는 않은 지붕으로 사다리가 걸쳐져 있다. 집의 내부와 외부에는 사람들이 있다.

글: 위의 그림에 대한 단편적이고 직설적인 표현들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다. 집이 있고, 사다리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이 일련의 행위를 나는 그 당시 이름 붙일 수 없었다. 그러는 당신에게는 특별히 일련의 이름 없는 행위들이나 사건의 종합인 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재주가 즉시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나는 이 일의 이름이 대충 “묘사”라던가 “해설”이라고 불리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설명이라든지 해설, 알려주기, 안내하기와 같은 말을 붙여도 괜찮다. 나는 그때 어렸다.

나는 어리고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 아무에게도 어떤 일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친구가 없었으며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 지금에서야 사람들은 친구가 있는 일과 무언가를

설명하는 일이 한데 묶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에만, 나는 그를 친구라고 생각했고, 오로지 그 순간에만 그는

나의 친구였다. 모든 일이 끝나면 나는 그를 친구로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설명했는지 그가 무엇을 설명해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도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에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책도 영화도, 어떤 이야기도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친구가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때에만,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것을 설명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어린 시절에 표범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가 어디서 왔고 왜 서로를

알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그 당시에도. 그는 나와 가끔 이야기했고 산책했다.

(사실 돌이켜 보면 나는 그와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다.) 나는 그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채로 그를 우연히 보았고 그의 이름이 표범이라는 것만 아는 채로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 집을 구경하고 공원을 산책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보여주었다. 그는 집으로 그를 설명했다. 다음은 그의 집에 대한 나의 설명이다. 이 설명은 이 시점에서 기억하기에는 그때와 동일하다.

집: 그의 집은 내가 살던 집의 근처에 있다. 그의 집은 나의 집보다 컸으며 잘 사는 사람들이 방치해놓은 집 같았다. 왜냐면 살림살이를 보면 그렇다. 보통 우리가 애미 애비 없다고 말할 때의 그 근거가 되는 이미지가 놓여있다. 그의 집에는 부모님이 없는 것 같으며 그가 그의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 같았다. 그는 자유로우며 그의 거취는 집에 있다가도 밖에 있다가도 한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생활도 없다. 나는 이 정도의 설명만 본 채로 이 집에서 나왔다. 그에 대해서는 이 이상 알지 못했으며 이 이후로도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한다. 공원에서 우리는 예술 일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다. 나는 예술 일반에 대해 그때에도 지금에도 알지 못한다. 나는 내가 설명한 것만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존재하지 않을 미래와 생활에 대해 예술

일반의 층위에서 설명했다. 나는 그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본 적이 단 한 번 있었다. 그들은 우리 집에서 물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었다. 누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서 나가야 했다. 애초에 우리가 있을 공간도 없었다.

나는 내 집이 있었던 적이 그다지 없었을뿐더러 집으로써 나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가 애미 애비도 없고 방치된 집을 가진 유년기 아동이 되는 날이 올 때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 나는 내 집과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집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고 그런 경우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나는 내가 정부의 담당 부서에 제시한 해결책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해결책들이 해결해 주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았다.

- 교류의 문제

- 공간의 문제
- 돌봄의 문제
- 생활의 문제
- ... 이외의 많은 문제들 (문제들이 많다는 것은 내게 생산적인 느낌을 준다)

먼저 내가 알려줄 이야기는 집과는 상관없지만 거주와 관련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독사 (꼭 개별적인 고독사에 대해서만은 아닌) 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그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 일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나는 일종의 영업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다르게, 내가 실제로 하는 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강매하는 일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도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내게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단순히 정해진 대로 회사의 상품을 설명하라고 (팔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내게 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는

내가 전화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순간을 중요시한다. 그들과 내가 우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나는 선천적인 이유로 눈이 좋지 않다. 점점 나는 내게 주어진 회사의 설명 가이드를 읽기 힘들다. 나는 눈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을 고객들에게 설명한다. 나는 내 친구들(고객들)과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동일한 제품을 설명한다. 내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다.

때때로는 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한 상품들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완충용 인간”, “도그 카운터”, “외골격 인간”과 같은 것들이다. 완충용 인간은, 차들이 충돌 실험을 할 때, 그들이 부딪히는 공간에 충격 방지용 인간을 사용하는 상품이다. 이 인간들은 실제 사고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들이 충격을 방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안전함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인간들이 대개 충격으로 인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사고 세계의 다른 플레이어인 운전자, 보행자, 차들이 덜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가끔 그냥 되고 싶어서 완충용 인간이 된다. 마치 틈 사이에 끼이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발생하는 충격을 분배받아 대신 파괴되거나 파괴를

통해 연관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는 이유 없는 충격에 의해 파괴되는 것보다는 완충하는 경험에서 달성되는 어떤 목적성을 제공받는 것이 나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도 가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 바깥의 세계 도처에, 모든 충격을 완충해 내고 산산이 부서진다. 그들은 충돌이나 충격이 없는 공간에 찾아가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충격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완충을 기다린다. 어쩌다 내가 그러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면, 대부분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나를 비난하는 편이지만, 한편 즐겁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 자체는 이러한 현상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 인간들은 심지어 보험도 들지 않는다. 그들에게 즐거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한번 완충을 경험하고 나면 그들에게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완충의 의무를 다한 뒤 내게 연락할 여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클레임을 받을 일은 없었다.

나도 때때로 내가 만들어내는 상품을 구매할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내 소임과 욕망이, 그것들을 설명하는 일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 어떤 의사는 술자리에서 만난 어떤

범죄자 서퍼에게 며칠날에 걸친 단순한 설득을 통해 스스로의 손가락을 모두 먹어 치우게 했다고 한다.⁵

단순히 무언가를 설명하는 일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내게 어떤 근원적 이미지이기 때문이라서는 아니다. 그것은 다음에 내게 일어난 일들 때문이다. 어느 시기 자연스럽게 어떤 상실의 이미지들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나는 단순한 설명이 아닌 다른 어떤 종류의 생각과 대화로는 마음에 차지 않게 되었다. 강렬하거나 차갑게 가라앉은 감정들, 열정적인 추억과 기억들, 열망과 수줍음, 감정들은 모두 역겹다. 놀랍고 위대한 굉장함도. 왜냐면? 그것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서. 나는 죽은 사람들에게도 설명한다. 나는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차분히 말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하면 또 안 된다. 단순한 설명이란 그 설명에 부합하는 이미지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너는 누워있다. 너는 손을 떼다. 너의 눈은 조그맣게 깜박인다. 그리고 침대에 붙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해양 생물들이 많이 죽게 된 유조선 침몰 이후의 바다처럼 아름다운 기름띠를 띄고 있는 연한 피부의 표면은 설명할 수 없이 복잡하다. 모든 단순한 설명은

⁵ 아라키 히로히토, 『조조리온』(2011~2021)

설명하는 사람의 최대한의 노력과 실패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약한 증거”⁶처럼 기능한다. 약한 증거처럼, 설명하는 사람은 자신이 설명하는 내용을 증언할 수 없다. 단순한 설명은 도달 불가능한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시시하고 오로지 단순한 설명만이 내게 감동을 주었다. 상실 이후의 세계 속에서, 모든 극복하려는 의지는 내게 슬픔과 불행만을 주었다. 단순한 설명은 내게 유년 시절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주었고 또 어떤 것의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판다. 그것 외의 다른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야기가 탄 데로 새는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해 보자면, 도그 카운터의 경우 이것은 내가 고심해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이다. 그것은 탄소 발자국 지수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탄소 발자국은 내가 보기에 근래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탁월한 쓰레기 아이디어이다. 왜냐면 사람들은 발자국 따위에 전혀 놀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진짜로 발자국을 지우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들의 몸은 온통 언제나 탄소와 다른 쓰레기에 뒤덮여 있다. 그래서 나는 도그 카운터를 선보인다. 도그 카운터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선택들,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 상품의 가격

⁶ 아리엘 도르프만, “Soft Evidence” in *Missing*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British Section, 1981), pp. 25-26.

등에 탄소 발자국과 같은 지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나는 발자국 대신 강아지가 몇 마리나 크러시 (crush) 되서 죽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도그 카운터에서는 강아지 몇 마리가 얼마나 즉시 끔찍하게 죽는지 자세히 표시된다. 실시간으로 죽는, 죽고 난 이후의 강아지의 얼굴들이 보인다. 버려진 강아지의 얼굴이 나올 때도 있다. 엄청나게 많은 강아지가 죽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 왜 불쌍한 강아지를 괴롭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걱정과 상관없이 강아지들은 계속 끔찍하게 죽는다. 혹은 끔찍하게 살고 있다. 끔찍하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진다.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은 거지, 강아지를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다. 강아지와 어린아이들은 모두 혼자 남을 때마다 영원히 버려진다. 하지만 아이들은 운이 좋게 살아남으면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들은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강아지들은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강아지들은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언제나 버려진 기억들을 갖고 있다. 강아지 안에 버려짐이 기억되어 있다. 강아지는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걸 모두 알고 있고, 또 강아지들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계속해서 버려지게 한다.

강아지들은 언제나 크러쉬 된다. 강아지들의 존재 이유와 진화 과정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버려짐을 대속하게 하고 그들 안에 보존시키려 하기 위함이다. 많은 일들이 오히려 강아지에게
잘 대해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도그 카운터는 도입될 일도 없고, 도입된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처럼 도입되지는 않을 것 같다. 내게 승산은 매우 적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것은 강아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해도 말이다. 심지어 사람들은
내게 강아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냐고, 한 번이라도 강아지를 키워보기는 했는지
물어본다.

이런 게 진짜로 웃긴 질문이다. 일단, 물론 나는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본 적 없다. 나는
대체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병이 있다. 내가
무언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쳐다보기 힘들다. 왜냐면 얼굴은 항상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외설스럽다. 그렇게 함부로 설명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한
얼굴은 단순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얼굴은 무언가를 속인다. 얼굴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얼굴은 마치 자신들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쳐다본다. 그러나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강아지와 함께 있겠다면 절대로 무언가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아지의 버려짐을 나눠 가져야 한다. 혹은 강아지에게, 그리고 강아지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아지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단순한 설명은 도달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는 언제나 줄창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강아지에게 언제나 무엇이든 영원히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우수한 강아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종종 오해된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내가 강아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그 카운터를 도입하는 것이 강아지들에게 분배되었던 버려짐을 돌려놓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객들은 내 이야기에 허점이 많고, 또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는 평들을 자주 해주신다. 나는 그래도 매일 혹시 모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면 내게는 이러한 설명들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납치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내게는 강아지를 끔찍하게 대하는 기록들이라던가 어떤 행동이나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강아지들을 학대하거나 버려지게 한다는 관계들을 추적하고 기록할 여력도 없고 내 머리는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버려진 강아지들에 대해 생각한다. 강아지들이 혼자 남았을 때의 표정을 생각한다. 그게 다일 뿐이다. 나는 그냥 그런 강아지들의 얼굴에 관해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얼굴들은 내게 혼란을

주고 나는 계속해서 기회를 놓친다. 특히 강아지나 동물들의 얼굴은 식물인간 같아서 내게
속상함을 주고 힘을 잃게 만든다.

동물들, 식물인간들. 왜 그들은 자신들을 설명할 수 없는가? 우연히 갖게 된 어떤 기회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소위 정책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을 만난다.
냉난방이 잘 되고 소리가 잘 울리는 큰 회의실에서. 수의사나 동물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동물들의 자기표현 방식에 관해 설명해 준다. 동물들을 오래 키워본 소위 반려자들이 내게
그들이 동물들과 맺었던 관계에 관해 설명한다. 그들 모두 동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내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우리 모두 노력하면 각 생명 주체가
상호작용하고 관계 맺을 수 있다고 말해준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언어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단순한 설명밖에 하지 못한다. 나는 내가 보았던 것과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저 설명할 수밖에
없을 뿐이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지만,
그저 상상할 수 있을 뿐 질문할 능력도 없다. 내게 얼굴들은 모두 혼란스럽다. 그게 동물
얼굴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내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이

혼란스러움을 공유하고 싶다. 내가 본 동물과 식물인간의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음을,

동물들과 관계 맺을 수 있고 식물인간들과 더 소통할 수 있음 보다 더 많이 설명하고 싶다.

나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항상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생각한다. 회사와 지자체도 항상 자신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왠지 모르게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나는 여유가 있는 그쪽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써주기를 바란다.

갑자기 어떤 자칭 뇌신경 전문가가 일어나서 친절히 대답해 준다. 신경회로는 정보전달자들의

집합체이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연구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신경회로를 접합시켜서 다른

존재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이미지, 욕망, 감동, 실망, 속상함을 모두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을 뿐 미래에는 우리는 모두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윤리적 비전도 이야기한다. 우리가 모든 것과 완벽히 연결돼서 모든 존재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쉽게 어떤 것들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인간

존재는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다른 존재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전달할 수 있다고. 아니 다른

존재들의 이미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공유할 수도 있을 거라고 덧붙여 변명한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뇌신경학자들을 모두 살해하고 아이들이 뇌신경학자가 되는 꿈을 절단내고 그 족속들이 더는 번성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전체주의 독재자가 되는 미래를 상상한다.

내가 대답했다. 솔직히, 저는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 속의 세계를 상상하고 싶지 않다는 심각한 충동이 들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말하는 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계 속에서 풍요로워진 우리들은 어떻게 과거에 그렇지 못했던 존재들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혹시나 우리가 과거의 모든 존재들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져서 과거의 우리들을 모두 되살려 그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서 나의 도그 카운트 계획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시행되는 것에 아무런 반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지금 여기에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과거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과거인 채로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는 불가능성의 물질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현재로 불러낸다고 해서 과거라는 것의 불가능성을 가능한 것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불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안내해 주는 교육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버려짐과 속상함을 극복해 낼 수도 없고 완벽히 설명해 내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위안받을 수도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과거에서 배우기를 희망하거나 과거를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과거를 통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느끼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끔찍한 강아지 사진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려고 하자 곧 회의는 종료되었고 나는 끌려 나간 뒤 특정한 기간 동안 공공 공간 반경 몇 미터에 침입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다. 회의 구성원들은 나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나의 지적 능력이 여러 가지 의제들의 논의에 참여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끌어내기에 상당히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의심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우발적 행동을 할 수 있기에 위험인물로 판단했다. 애초에 이러한 공적 공간의 공적 행사의 구성원으로서 나를 들여놓는 과정에 어딘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물론 그들의 판단은 옳았다. 나는 확실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곳에 참여했다. 내가 언제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이든 간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기여를 했던 기억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객들에게 몰래 이러한 상품들을 파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때로는 단순히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내 상품을 원했고, 나는 그런 고객들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도망친다. 그들은 가끔 회사로 찾아와 나를 찾는다. 나는 완전히 일련의 사실들을 부정한다. 사람들은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지만, 나는 특색 없는 사람이고, 언제나 이 비즈니스에서 불만 갖는 고객들은 많기 때문에, 또 모두 자신들이 몰두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곧바로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쳐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노동을 하는 직종의 사람들을 걱정하는 척을 한다. 대체로 고객 상담원, 서비스직들, 그들은 걱정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좋은” 종류의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그들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을 안내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다.

좋은 종류의 감정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 쪽에는 좋지 않은 종류의 감정노동자들이 있다. 광고, 스팸 전화, 사기꾼들, 다단계 업체들,

사이비 종교인들과 그냥 종교인들. 포교하는 사람들. 무언가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들은 대개 적절한 돈을 받거나 받기를 기대하며 “설명”을 하거나 “자신들이 좋아서” 이 일을 한다. 판매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설명. 이것들이 이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이다. 사람들이 들어서 좋을 것이 없고, 아무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팔기 위해 사람들의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 성가신 벌레들. 고통받고 슬퍼하는 시간에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댄다.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쁜” 감정노동자들.

그러나 감정노동은 감정노동이다. 사람들은 마치 좋은 감정노동자는 좋은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받고 혹은 적어도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어쨌든 똑같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왜 누군가가 원했다고 해서 어떤 설명은 좋고 그렇지 않은 어떤 설명은 나쁜가? 혹은 우리는 꼭 어떤 설명들이 누가 물어보았다고 해서 답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알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감정은 보호되어야 해서?

내가 하는 것 중에 종종 비난받는 주장은 나쁜 감정노동자들이 좋은 감정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혹은 “열악하게”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내 주장은 이것이다. 나쁜
감정노동자들이 좋은 감정노동자들보다 더 좋은 의미에서 나쁘다. 이는 바보같이 단순하게
들리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주된 정서는 이 세계에 제안들이
있고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쁜 감정노동자들은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 당신을 연습시키고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죠. 좋은 감정노동자들은 오히려
당신을 약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좋은 감정노동자들을 통해 당신이 마치
남들을 상처입힐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애초에 문제는 이 모든 비즈니스의
가장 밑바닥에 감정노동자들이 있어야만 모든 비즈니스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고객센터에는 전화하면서 광고 전화는 받지 않으려 하죠? 아니, 아닙니다.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말은, 감정노동자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 단순한 설명, 즉 도달
불가능한 우리의 관계를 구성하는 그것이 감정노동을 통해 쉽고 친절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치부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전화가 종료되고, 문자가
종료되고, 대화가 종료되고 나서 찾아와야 할, 모호한 상실감과 알 수 없는 외로움은 서비스
리뷰로 대체된다. 적어도 나쁜 감정노동자들은 우리에게 그것의 일부를 전달해 준다.

아니,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듣기 싫은 표정을 짓지는 마세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줄게요. 나는 오늘도 회사에서 은밀히 고객들에게 전화로 수상한 상품들을 제안하다가, 어떤 죽어가는 사람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여러 가지 밀린 고지서들과 빚더미와 함께 고독사 중이었는데, 가족이 변제해 주었던 것인지, 혹은 통신사 측에서 실수로 이 사람에게 밀린 통신 요금 정보를 갱신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전화가 가지 않아야 했는데 전화가 가버린 거죠. 그는 오랜 시간 오지 않았던 전화가 와서 놀랐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한참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침 받지 않는 똑같은 번호에 얼마나 전화해야 받을지 실험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내내 이 번호로만 연락을 걸었습니다.

죽어가던 그는 마침내 가까스로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처음이라, 내가 내 식물인간이 되었던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거의 정지한 몸에서 나는 아주 작은 반응을 감지 하려 해보았습니다. 그의 마른 가래로 가득 찬 호흡기 사이로 기어 나오는

숨소리, 곰팡이들이 썩어가는 소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들로 만들어진 장판 얼룩이 굳는 소리를 나는 알아챌 수 있었고 이 사람이 고독사 중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바쁘면서도 그다지 바쁠 일은 없다고 판단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어 나갔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세일즈란 고객에게 맞추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상황을 긍정하고 고객이 필요한 것을 먼저 제시할 때 영업은 성공합니다.

나는 내 멍청하고 단순한 머리를 열심히 굴리며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고독사는 혼자 죽는 것이 아니다. 고독사는 얼룩이다. 고독사는 물질화, 구체적으로는 액체화의 과정이다. 몸의 불황을 예견하는 액체들이 정지한 신체에서 절멸의 천사처럼 도망치고, 불행히도 다양한 매체에 걸쳐 끈적한 가래 같은 것으로 뿜어져 나온다. 고독사는 그래서 원룸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고독사 매트릭스를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구요, 고독사하는 사람들을 겹겹이 틈 없이 최대한 쌓아서 그들의 액체들이 서로를 통과하면서 순환하게 하는 것이다. 음, 좋은 생각인데? 하고 나는 적당히 기뻐했습니다.

요즘 고민하던 생각들도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액체가 흐르지 않는 병. 몸에 피가 돌지 않는 병.

생존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기. 생존하기 위해 습기를 만들기. 감동을 보기. 눈물을 만드는 것을

찾기. 속상한 마음을 갖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 프로파간다들을 봤나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게 되면 세포벽이 무너져서 액체로 흘러내리게 된다는

프로파간다를? 그런 싸구려 프로파간다 때문에 사람들의 액체들이 점점 말라져서 굳게 되고

내부에서 갈 곳 잃은 액체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액체들은 순환할 곳을 잃어서 빠져나오다가

얼룩이 되죠. 나중에 냄새가 나면 집주인이 신고를 받고 문을 열어서 고독사 시체를 발견합니다.

나는 이 고독사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가뭄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독사하는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겹겹이 쌓아놓으면 그들의 액체들이 서로를 순환하며 그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다양하게 뒤집어서 순환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회전식 그릴 같은 것도 만들어야

했죠. 또한 이들이 계속해서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가 손수 만든 슬픈 영화와 고쳐되는

연설도 읽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물론

여러분이 의견을 제기할 만큼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요. 그러나 나는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동생도 그런 경우였죠. 어느 날 뇌종양이

생기고 나서는 점점 몸을 움직이지 못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처럼

몸의 액체들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왜 내 동생은 갑자기 뇌종양이 생긴 걸까요?

어렸을 적 도덕 교사는 내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내 몸도 내 마음도 쓰레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도 쓰레기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뇌종양 가루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영화 <왓치맨>⁷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닥터 맨하탄은 암에 걸리는 가스를 환풍기와 에어컨에서

틀어주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암에 걸립니다. 또는 스티븐 호킹의 전기를 다룬 영화⁸에서

정원을 산책하던 그에게 세계의 한 방울의 물방울이 그의 시스템에 침입하고 그는 순식간에

병신이 됩니다. 나도 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하고 기다립니다. 단 한 순간,

한순간만 암 바람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면, 모든 정신과 육체는 흐물하게 스러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방식으로 관계 맺는 존재들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한 번 돌린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멀쩡해 보이지만 곧 우리는 흘러내리며 돌아간 눈과 마비된 사지들을

부딪치며 소통합니다. 소통하려 했던 것들을 상실한 채.

⁷ <왓치맨>, 2009

⁸ <사랑에 대한 모든 것>, 2014

요즘 나는 그런 위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음모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예정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설명은 그저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죠.

여러분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어떤 세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정이야 다르지만 여러분은 이제 몸에 아무런 힘도 없고, 말도 나오지 않으며 점점 몸이 굳고 피부는 연하게 바뀌어서 곳곳에서 불쾌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한데 모은 이유는 여러분을 더 낮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떤 임계점을 돌파한 것 같으니까요. 저는 단순히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버려진 노인들을 주위다가 버려진 요양원에 넣어주는 일처럼요. 제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해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는 무언가를 제안할 뿐이에요. 운이 좋게도 여러분은 내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덕분에 여러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듣고, 또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시도를 강아지들과 함께 해보려고 했지만, 강아지들은 여러분처럼 흡수력이 좋거나 의견이 없지도 않았으니까요. 일단 여러분은 상당히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세계가 당장 마주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한 더미의 우울한 고독사하는 사람들로써 그다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여러분을 데려오는데 많은 힘을 썼고 또 그 과정은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꼭 성공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제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관공서의 주차장은 여러분이 모여있기에는 협소하고 또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흘러내리게 되면 그것들을 마시고 흡수할 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연습을 많이 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저 흘러나오는 것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들은 흘러나오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흘러나온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죠.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것이라고 믿어요. ”

그러나 담당 부서의 사람은 내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설명을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 천천히 내 제안을 설명해 보았지만 먹히지 않자, 종이에 써서 그것을 전달하려 해보았어요.

- 고독사하는 사람들은 말랑말랑하고 흡수가 잘 되는 재질이 되어있음. 그러나 이들은 액체가 잘 빠져나가고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아 쉽게 말라 얼룩으로 변함
- 지금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고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거부함. 자기소외가 심하며 설명을 거부함. 설명을 듣거나 설명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굳게 딱딱해질 것임
- 고독사하는 사람들을 딱딱한 사람들에게 달라 붙여놓고 그들이 서로의 액체를 순환시키도록 함. 그들은 한 쌍이고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외골격 인간임
- 고독사하는 사람들 대신 식물인간, 장애인, 노인들을 사용해도 무방함
-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교육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 내가 원하는 것은 살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교육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교육

- 교육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는 설명에 대해 알려줘야 함

그러나 나는 경비원들에 의해 쫓겨나고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은 앰불런스가 와서 모두

어디론가로 데려갔어요. 그들이 기하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공간의 밑에는 작은 얼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내가 이전에 보았던 통상의 고독사 얼룩과는 색도 냄새도 달랐어요. 작은

차이가 내게 어떤 희망을 주었지만, 역시 그런 차이들의 작음은 동시에 슬픔을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는 눈을 들었을 때 길거리에 서 있던 어두운 사람의 형체를 발견했고 당신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죠. 아주 큰 속상함 뒤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설명하고

싶어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당신의 내장은 이미 썩어있고 흘러내리고 있군요. 당신은 고독사한

사람들이나 식물인간으로 죽은 사람들과는 달라요. 당신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커다란 구멍으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것은 숨을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어서, 벌레나 쥐들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당신은 세입자를 까다롭게 받는군요. 그렇게 내가 제안하려는 것을 선불리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내가 요청하고 또 고심하는 것을 이해해요. 그저 이번 기회에 한 번만 체험해

보는 건 어때요? 당신이 손해 볼 것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요.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절약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